

길어진 온라인 개학에 긴급 돌봄교실 복적

광주 초등학교 3월 400명서 17일 이용자 3000명까지 늘어 시교육청 방역·거리두기 당부 당국 "꼭 필요한 경우만 이용"

확대와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 등이 겹치면서 급증세를 기록해 지난 17일에는 3000명에 달했다. 장기간의 교육공백과 아이 돌보기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들이 긴급 돌봄을 희망하고, 스마트기기 사용법과 원격수업 플랫폼 이용 방법 미숙 등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기정사실이 늘면서 돌봄교실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부모 맞벌이 등으로 긴급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학교를 찾는 사례도 늘었다. 긴급 돌봄 취지와 어긋나게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학교를 찾아 점심을 먹고,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긴급

돌봄을 신청하기도 한다. 원격수업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았거나, 스마트기기 사용법과 원격수업 플랫폼 이용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사이에선 이용 학생 밀도 증가에 따른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주일 만에 30명 넘게 확진자가 급증한 경북 예천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긴급돌봄에 참여했던 교직원·학생·학부모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교육청은 긴급 돌봄 참여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 심각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과 후 가정생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를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김수강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니 학부모들은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고, 학생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공원 4·19 추모제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4·19혁명희생영령 추모비' 앞에서 열린 '제60주년 추모제'에 참석한 4·19 유공자 30여 명이 분향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살레시오 여중·고 100인 함께하는 온라인 합창

5월 성모성월 행사서 상영

코로나 사태로 중단할 위기에 놓인 50년 전통의 합창 축제가 온라인 버전으로 치러져 희망을 노래한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살레시오 여자 중·고는 5월 성모성월(聖母聖月·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달)을 맞아 100인이 함께하는 온라인 합창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00명이 부분별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모아 합창곡을 완성한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호흡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50년을 이어온 합창 축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각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

가 모여 희망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음악 교사와 학생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부분을 맡아 참가자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시범 영상을 제공했다. 각자 노래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5월 마지막 주 성모성월 행사 때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기획한 살레시오 여고 고동현 음악 교사는 "멋진 하모니가 완성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고 서로 하나 됨을 느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봄비 머금은 철쭉 이른 아침부터 봄비가 내린 19일, 광주시 북구 동국대학교 캠퍼스의 철쭉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대, 호남·제주권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

국토부 공모 전국 6개 대학 선정 2024년까지 석·박사 과정 지원

호남·제주권역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광주대학교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공모사업'에 광주대가 최종 선정돼 국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제, 문화, 복지, 도시, 건축, 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도시재생 인재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4

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 관련 석·박사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광주대를 포함해 고려대, 인하대, 충북대, 경북대, 경성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광주대는 호남·제주권 대표적인 도시재생 거점 교육기관을 목표로 도시재생학과를 신설해 융·복합 학제간 커리큘럼 구성(교육), 도시재생 협업 테스트베드(연구), 지역 맞춤형 리빙랩 운영(학사), 지

자체·공공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네트워크)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광주대와 도시재생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비 지원을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

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앞으로 추진할 뉴딜사업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광주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온라인 재택수업 1학기 전체로 확대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1학기 전체를 재택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지난 16일 학(원)장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의 확산방지 차원에서 당초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던 재택수업기간을 1학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 이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합수업이 불가피한 학부의 실험실습 및 전공실기 교과목은 엄격한 통제아래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수는 집중보강기간(6월 29일~7월 19일)

에 충족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여름 계절학기는 당초 4주에서 3주(7월 15일~8월 4일)로 단축 운영된다. 이와 함께 1학기 중간고사 시행여부나 방법에 관해서는 각 교과목별 담당교원의 자문에 맡기로 했다. 또 재택수업의 장거리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되, 학점당 배정 비율이나 실험실습 교과목에의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혈액암 정밀의료 선두주자' 주목

화순전남대병원이 단일 기관으로서 혈액암 분야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이 국내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정밀의료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순전남대병원 정밀의학센터의 혈액암 분야 NGS(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실적은 2018년 140건, 2019년 213건

으로 단일기관으로서 국내 최고수준이다. 이 같은 NGS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암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호남권에서 유일한 병원대 정밀의학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개소했으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에서 공동운영중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The plate you've been waiting for
 현상기가 필요 없는 KODAK SORONA 무현상 판재

코닥 SORONA 무현상 판재는 전 인쇄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판재입니다.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규제에 대한 염려없이 친환경 인쇄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으며, 높은 내쇄력을 제공하여 경제성과 생산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현상 판재입니다.

SONORA! CAN PRINT THAT!

문의: 한국코닥㈜ 02-3438-2600
 서울시스템기술㈜ 062-226-4093